

하늘

뜻 따라 사는 평화의 도시 순천, 예로부터 산천이 아름답고 인심이 좋아 살기 좋은 고장으로 알려져 있는 이 곳에서 고통받는 이웃의 쉼터로 자처하며 최상의 의료서비스로 지역민들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성가롤로병원을 협회 광주지부의 추천으로 찾아보았다.

순천시의 신도심 금당지역 순천·광양간 대로변에 위치한 성가롤로병원은 전남 동부지역 핵심 의료기관으로서 천연의 요새처럼 깎아지른 암벽을 병풍처럼 두르고 웅장하고 단아한 모습으로

병원으로 손꼽히고 있는 이 병원은 26,000평의 대지 위에 연건평 19,000여 평의 지하 1층, 지상 10층 건물에 내과를 비롯한 21개 진료과를 개설하고, 700 병상의 입원실을 갖추어 연평균 50만 명의 입원·외래환자가 이용하고 있다.

천주교 까리따스수녀회가 운영하는 성가롤로 병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0여 년을 한결같이 환자들의 전인치료와 의료의 질 향상에 온 정성을 기울여왔기에 지역주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으며 오늘에 이르렀다.

소방시설

초기 화재진압장비인 소화기 200여 개가 적절하게 비치되어 있으며, 옥내·외 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및 특수소화설비인 CO₂설비가 용도에 맞게 설치되어 있다. 또한 피난 및 연소확대 방지 시설로 비상용 승강기, 제연설비, Fire Damper 및 차단설비 등 완벽한 시설을 갖춰 화재시 초기에 진압 및 피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중앙감시반 방재센터에는 R형 복합식 수신기 시스템을 갖추고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6명의 요원이 연중무휴로 24시간 화재감시와 순찰활동을 하며 화재발생 자체를 용납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 지어진 건물답게 최신 소방시설들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리자들의 자부심 또한 대단하여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는 모습 또한 대단히 보기 좋았다.

방화관리의 조직 및 활동

병원의 방화관리 업무체계는 방화관리 총괄책임자 아래 관리과 방재팀이 중앙감시반에서 모든 감시활동과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400여 명의 자위소방대원이 부서별, 근무형태별, 난이도별로 조직되어 있다.

탐방/우수방재업체

고통받는 이웃의 쉼터, 순천 성가롤로병원

반 경 의 | 경영기획부 과장

지나는 길손의 시선을 붙잡는다.

병원 개요

진료소 규모의 조그마한 의원에서 출발하여 올해로 개원 31주년을 맞이한 성가롤로병원이 지금의 새 병원으로 신축 이전한 것은 1998년 3월.

지방에 위치한 병원으로서는 드물게 규모나 시설, 보유 의료장비 및 의료의 질 면에서 여느 대학병원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우수 종합

병원 특성상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등 하루 2,000여 명의 불특정 다수인이 드나들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인명구조, 대피, 소화 등 정기적인 소방훈련과 교육을 하여 모든 대원에게 자기의 임무를 정확하게 숙지시키고 있다.

가스, 위험물, 전기, 의료가스 등 모든 위험요소마다 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하여 방화관리자를 중심으로 방화관리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매주 화요일을 “소방의 날”로 지정하여 소방시설 작동점검 및 문제점 개선에 힘쓰고 있다. 또한, 매일 3회 이상 순찰점검을 하여 화재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소방업무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소방 질관리(QI)시스템을 도입하여 화재발생의 Zero화를 꾀하고 있다.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병원이라는 하지만 종교단체인 수녀회가 운영하는 까닭에 모든 것이 원칙을 준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부분까지도 완벽을 추구하며, 또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안전관리 담당자와 방화관리자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성가롤로병원의 자랑

종합안내실에서 환자들을 반겨 맞이하는 수녀님들의 맑고 선량한 미소, 직원들의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에 금방이라도 환자들의 병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병원 내·외부를 막론하고 넓고 쾌적한 환경, 최신 설비, 각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갖춘 의료진, 이들을 지원하는 막강한 지원부서, MRI, CT, 혈관촬영기를 비롯한 최첨단 고가 의료장비들을 갖추고, 인간 생명을 살리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성가롤로병원은 금년에는 재미교포 독지가의 도움으로 심장병 환자들을 위한 심혈관센터를 개설하였다고 한다. 또한, 호스피스 병동, 정신과병동, 노인전문병동 등 특수병동을

운영하며,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 사회적, 종교적 도움을 주기 위한 사회사업과와 원목실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역사회와 더불어 가진 것을 나누는다는 취지로 강당, 회의실, 세미나실 등을 무료로 대여해 주고, 환자와 지역민들의 문화 수준을 높이고 정서함양을 돕기 위해 비디오 상영, 전시회, 음악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는 등 단순한 질병치료의 차원을 넘어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고 한다.



오늘도 성가롤로인들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새 삶의 희망을 주고, 꺼져가는 심지를 북돋우는 심정으로 임종환자를 돌보며, 질병에서 오는 통증, 우울과 불안으로 시달리는 이들에게 기쁨과 환희를 되찾아주기 위해 혼신을 다하며,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생명과 부활의 집이라는 자부심으로 환자들을 돌보는데 여념이 없다.